

어린이법회 '10년 간' 지속... 그 비결은?

서울 역삼동 보리사, 11월 15일 '어린이회 창립10주년 법회'

어린이법회 가뭄 속 10년 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이어온 곳이 있다. 서울 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조계종 보리사(회주 종하다) 이곳을 거쳐 간 어린이들만 1백여 명이 넘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법회가 사라지는 실정에 어떻게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 개신교가 강세인 강남지역에서 대항사찰이 아닌 소규모 사찰이 어린이법회를 지속해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법회 참석률이 저조해지며 보리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사찰 측 의지만큼은 결연하다.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2005년 명조 스님이 당시 주지로 부임하며 처음 창설됐다. 어린이법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명조 스님은 포교사단에 부탁해 10여 명 포교사들이 모였다. 10년 전 그때부터 보리사 어린이법회를 담당해온 김석두 포교사는 "창립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으기 위해 포교사 10명이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어깨띠를 메고 사랑을 나눠주며 홍보했다"면서 "아이들이 한 달 모이기 시작 하더니 매주 20명 넘게 참석할 때도 있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강남지역에서 작은 사찰에 어린이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역삼동에 위치한 보리사 대웅전에서 '어린이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청소년법회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10년 동안 어린이법회를 거쳐 간 청소년 및 청년 불자들이 함께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10주년 경과보고 및 영상 시청,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등 진행됐다. 특

강남 소규모 사찰서 '이례적'

출신 학생만 1백여 명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아

다양한 활동·꾸준함이 비결

히 2부 축하공연에선 △이연수 학생의 독창 공연 △중학생단의 '카우벨' 연주 △김서연 학생의 '어린이 영문 자타카' △고등학생단의 '콘트라베이스' 연주 △김승현의 3명 보리사 밴드 공연 △최현의 외 1명의 열בל름 △보리사 합창단 △보리사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모든 무대를 보리사 어린이회 출신 학생들이 꾸리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보리사 어린이회는 그간 사물놀이, 비보이 댄스, 밴드, 찬불가 울동, 난타 등 장르 불문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시해왔다. 여



보리사는 2005년 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10년 간 단, 난타, 요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에 11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보리사 대웅전에서 '어린이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처럼 예산 부담이란 고충을 안고 있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김석두 포교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포교사는 "사중 내에서 받는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모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모들이 나서 아이들 체험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니 포교사들도 정말 힘을 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김 포교사는 보리사 어린이회의 강점을 꾸준한 '지속성'으로 꼽았다. 김 포교사는 "매주 1~2명의 포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포교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어린이

법회 담당을 맡기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면서 "많은 보리사 어린이회 출신 포교사들이 각 지역별 사찰에서 어린이회 탐방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이 몇 명이 오든 무관하게 포교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김 포교사는 "인원이 적은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회주 종하 스님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법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며 "1명이 훗날 1백 명을 포교할 수 있다. 항상 문을 열어두면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험생 '템플스테이'로 스트레스 '훌훌'

11월 12일~12월 8일 전국 사찰서 실시

11월 12일 단 하루를 위해 중·고등학교 6년 간 씹어 먹어온 학업에 정진해 온 고3 수험생들. 그간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기 위해 전국 각지 사찰이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1월 12일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공개했다. 수능 직후인 11월 12일~12월 8일까지 전국 각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대학입시생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서울 진관사는 11월 28~29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재은, 이하 KBUF)와 함께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나를 찾고, 힐링을 찾자'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KBUF 대학생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멘토로서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스스님과 차담 스포츠행 스나에게 보내는 편지 등 프로그램도 구성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경북 성주군 자비선사는 11월 12일~12월 6일 '자비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가족 및 친구, 연인, 선배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무료로 참여가능한 한 이번 행사는 선착순 3백 50명 모집한다. 프로그램

수험생 위한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명	프로그램명(기간)
고운사	let it go! 저 절로 간다.
구인사	마음을 비우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국제선센터	굿바이 수능! 헬로 템플스테이!
대원사	마음생생
문수암	나를 찾는 명상삼담
미륵사	수험생을 위한 마음템플스테이
반야사	수고했어
백담사	꿈과 함께하는 어울림 템플스테이
법흥사	내 꿈 내 꿈 내 꿈! 발원하옵시다
봉은사	쓰담, 쓰담 수고했어요
송광사(순천)	스무 살을 부탁해
수진사	스키타고 템플스테이
심원사(성주)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쌍계사(하동)	수류개 '나'는 위로받고 싶다'
쌍봉사	수능대학원템플스테이
용문사(남해)	수능 참가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용화사(통영)	이제는 놀자
자비선사	명상하며, 휴식하며
직지사	2015수능수험생 새 출발 템플스테이
죽자사	안녕! 열아름, 안녕? 스물
화엄사	NEW START
화운사	내려놓고, 가만히
홍곡사(고양)	때로는 그냥 쉬어보자
홍곡사(여수)	대학입시 수험생 템플스테이
진관사	2015대학입시 수험생 템플스테이

은 스차 명상으로 배우는 소통의 방법 △걷기 명상으로 배우는 섬의 방법 △다독이 공예, 함장주 만들기 등 마련된다.

각 사찰별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예약사이트(www.tem-plestay.com) 문의 (02)2031-2000

박아름 기자

돈관·덕조·성원 스님 약천사 창건주 승계

11월 7일 대적광전서 봉행... 1천여 명 참석

조계종단 '최초' 창건주권한 승계 불자들 위해 연구할 것 당부

"약천사, 수호하고 발전시킬 것"

약천사 회주이자 창건주인 혜인 스님이 조계종단 최초로 돈관 스님(은혜사 주지)과 덕조 스님(만상좌, 종회의원), 성원 스님(삼좌, 약천사 주지)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혜인 스님이 신심과 원력으로 이룬 약천사 창건주 승계식은 지난 11월 7일 대적광전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일명 스님(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혜종 스님(前 포교원장)이자 성역화 사업추진위원회 부위

원장, 법의 스님(은혜사 한주), 지현 스님(송광사 울주), 혜전 스님(비구니회 제주지 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혜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가뭄장을 금으로 바꾸고 10만 탑을 쌓는 다하더라도 만나는 불자들을 섬섭하게 한다면 그 절 주지의 자격이 없다"며 "약천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즐겁고 편안히 하게끔 지나 깨나 연구하는 것이 약천사 주지의 소명"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한을 승계 받은 돈관 스님·덕조 스님·성원 스님은 인사말서 "혜인 스님이 거대한 중생제도의 원력으로 창건된 약천사의 의미를 잘 수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



약천사 회주이자 창건주 혜인 스님이 11월 7일 대적광전서 조계종단 최초로 돈관 스님과 덕조 스님, 성원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했다.

님도 격려사를 통해 "오늘 승계받은 세 스님은 서로 화합해 창건 정신을 이어가라"며 "훌륭한 집은 울타리가 잘 만들어져 있

듯이 불자여러분들이 승계받는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불교신문 이명철 기자

여성개발원,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2부 기념식에 앞서 1부에서는 연극 '토라진 부처님'이 펼쳐진다. 남지심 작가와 임완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이매옥 (사)깨달음과나눔 이사장 외 10인의 여성개발원 회원들

이 배우로 나선다. 주제는 '여성 불자들의 신생활을 성찰하는 시간'이다.

아울러 3부 토크쇼에는 월호 스님, 진명 스님을 패널로 △여성불자들의 자세 △바른 신행 △불교여성개발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일반 패널로는 안주희 불교여성연구소장, 김의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불레협, 제56회 겨울지도자강습회 개최

11월 21일·28일 경기지역 및 대구서 2차례 실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오는 11월 21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제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경기도 수원포교당에서, 28일에는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공도량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강습회는 '놀이로 배우는 인성'이란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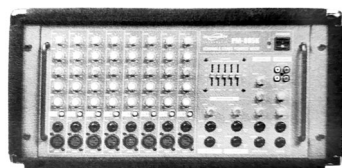
등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 개발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신속진 재미 재미오감놀이 강사의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방법' △진성철 크나나무이벤트 대표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찬불가 활동 지도 및 활용법' 등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문의(02)738-7860 및 불교레크리에이션 카페(cafe.daum.net/burec) 박아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소형 믹서 5개, 탁상형 구조체 마이크 1대, 사형용 마이크 스탠드 1대, CD기 1대
- ◇ 특징 : 차제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 특징 : 차제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